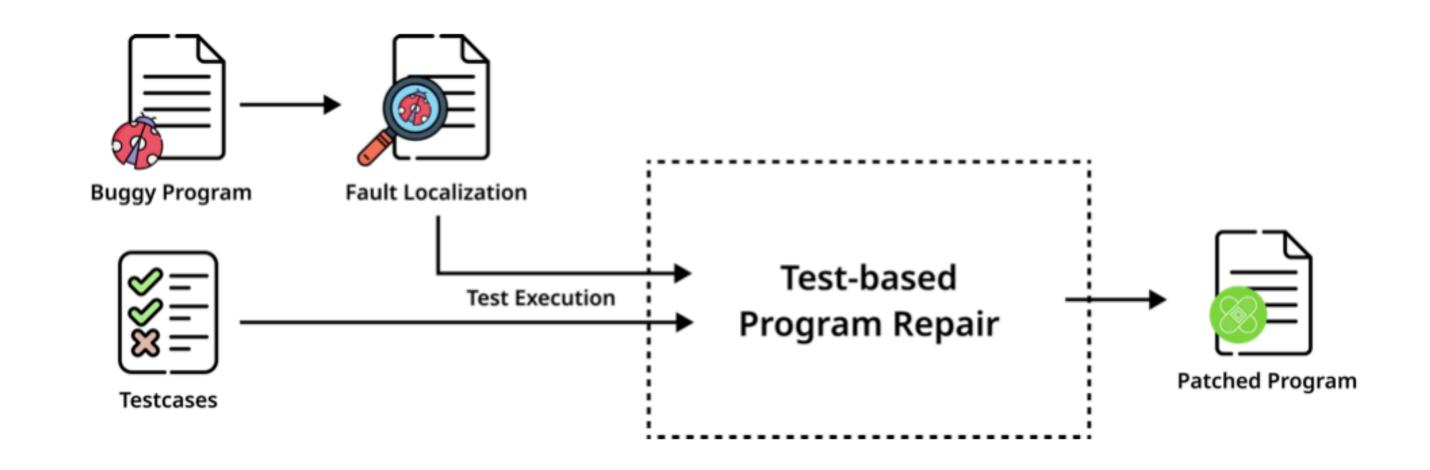
일반화를 보장하는 PBE 기반 프로그램 수정

한양대학교 프로그래밍시스템연구실 이제형 ERC 여름 워크샵 2023년 7월 3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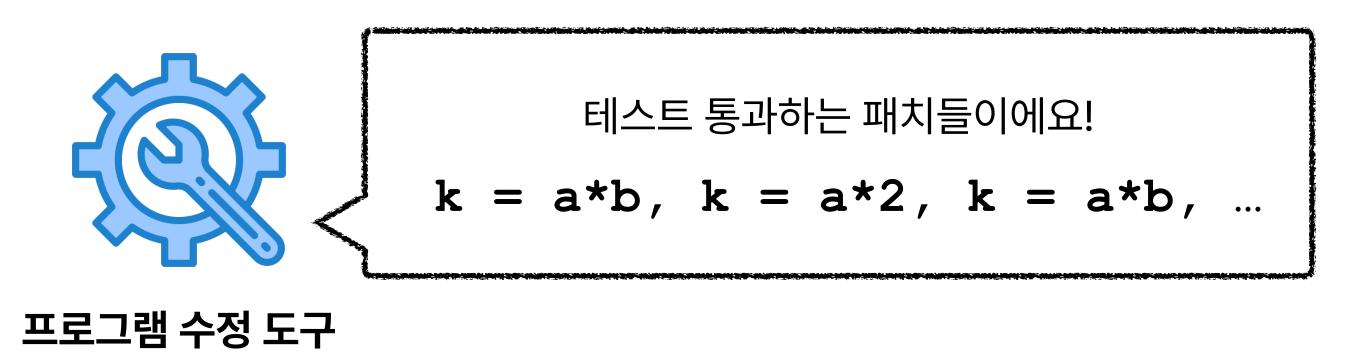
프로그램 오류 자동 수정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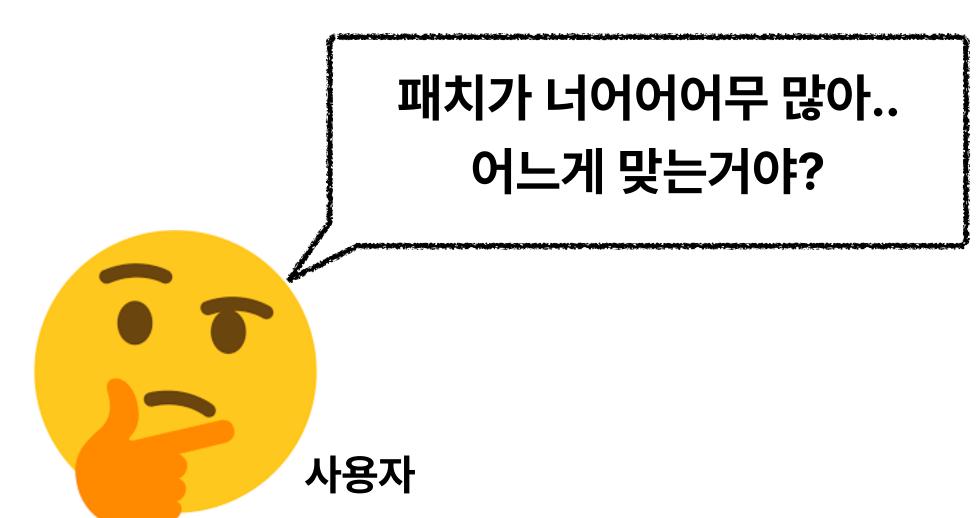
- 오류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**자동으로 수정**하는 기술
- 테스트 기반 오류 수정
 - 1개 이상의 실패하는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케이스와 버그가 있는 코드 받아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는 코드로 수정
 - 기존 연구 : FAngelix (IST'22), VulnFix (ISSTA'22), CPR (PLDI'21), ...



그 패치가 올바른 거 맞아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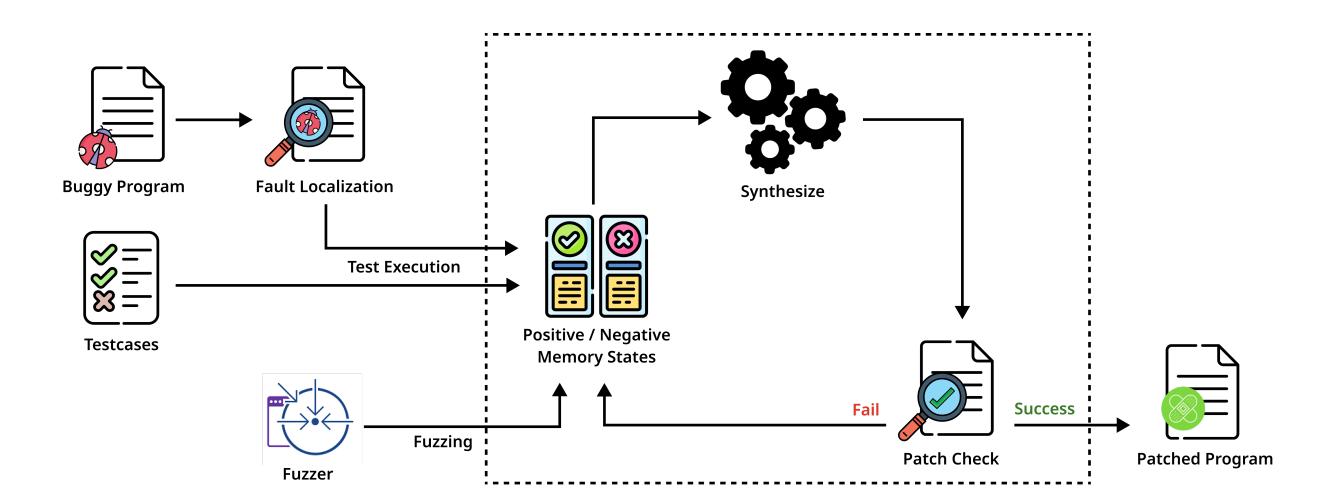
-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패치 코드는 여러개 존재할 수 있음
 - 여러개의 그럴듯한 패치 중에서 어떻게 올바른 패치를 고를까?
 - 기존의 프로그램 수정 기법들 : **다양한 휴리스틱 사용** (원본 식과 비슷하게, 신경망 기반 등..)
- 프로그램 수정 도구들은 결과로 패치 코드를 제공하지만,
 제공된 패치가 올바른 지에 대한 확신을 줄 수는 없음





Crash Fix에서 과적합: VulnFix 소개

- VulnFix: Crash가 나는 테스트를 수정해주는 프로그램 수정 도구
 - Crash가 나지 않는 바람직한 메모리 상태와 Crash가 발생하는 좋지 않은 메모리 상태를 구분하는 Invariant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수정
 -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 외에 Fuzzer를 이용하여 Crash가 발생하는 입력을 찾아서 합성에 사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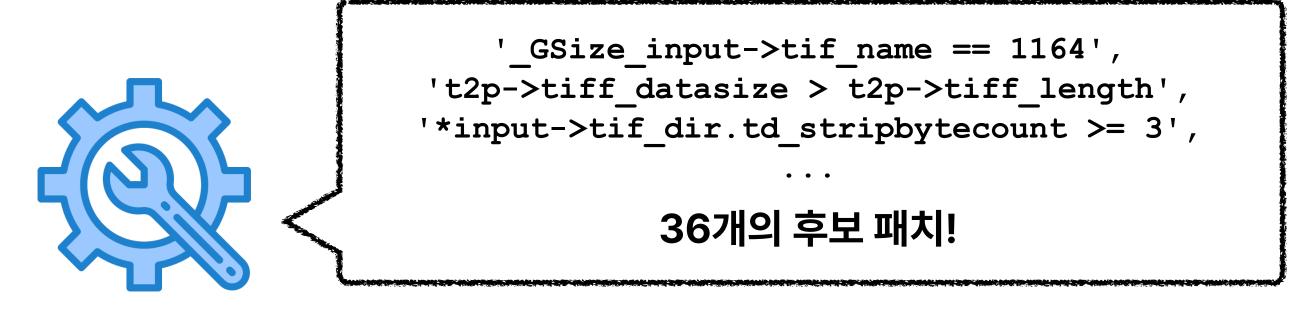
Crash Fix에서 과적합: VulnFix에서의 예

- libtiff-CVE-2016-10094
 - 매우 간단한 연산자 패치
 - 1시간의 Fuzzing으로 얻은 입력으로도 36개의 후보 패치를 얻어 이들 중에 올바른 패치가 있는지 알 수 없음!
- 후보 패치가 여러 개일 경우, VulnFix는 올바른 패치를 고를 능력이 없어 패치 생성 실패로 처리 (실험 결과 중 약 16%의 패치가 여러 개의 후보 패치로 인해 실패)

```
if(TIFFGetField(input, ..., &count, &jpt) != 0) {
if (count >= 4) {
...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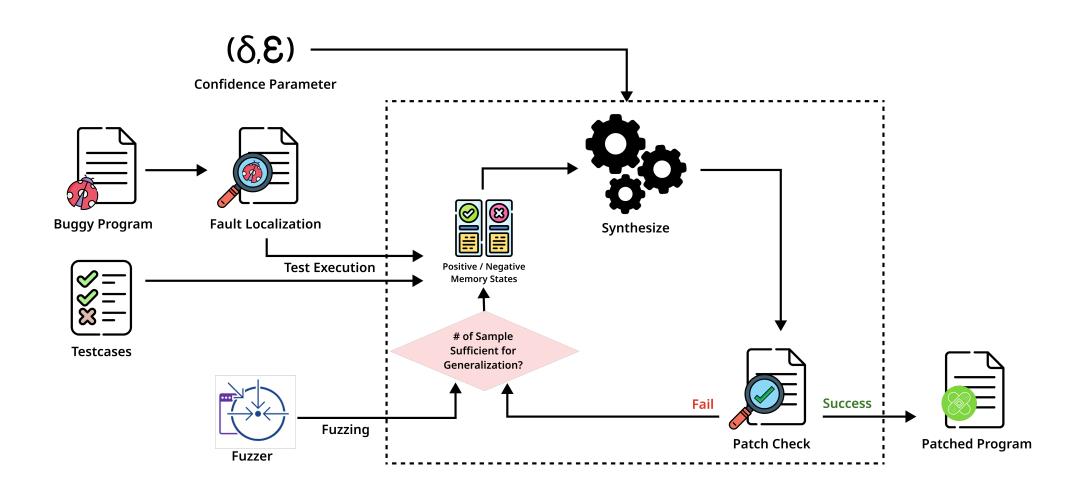
```
if(TIFFGetField(input, ..., &count, &jpt) != 0) {
 if (count > 4) {
 ...
```

libtiff-CVE-2016-10094



우리의 기법

- PAC Learning을 이용하여 일반화된 패치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상태의 수를 계산
- Fuzzer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상태를 확보하여 합성 → 일반화를 보장하는 패치 합성
- PAC Learning
 - ullet 어떤 가설 공간 (정답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들의 공간) H에서 **에러 확률이** ϵ **보다 낮을 확률이** δ **보다 낮음을 보장**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샘플이 필요한지 계산 하는 이론
 - ullet 패치를 좋은 메모리 상태와 나쁜 메모리 상태를 구분하는 일종의 함수로 보면, 사용자가 제공한 ϵ,δ 에 대해서 필요한 샘플 (메모리 상태의 수)를 계산 가능



요약

- 기존의 프로그램 수정 도구들은 패치의 올바름을 보장해주는 기법이 없었음
 - 결국 패치가 자동 생성되어도 개발자는 수동으로 패치를 검토해야 함
- PAC Learning 이라는 이론적 도구를 활용하여 패치의 올바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상태의 수를 계산 가능
- 이를 이용해 Crash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올바른 패치를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

감사합니다